

보건계열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이지영¹ · 강용주^{2*}

¹진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²진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부교수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Freshmen Majoring in Health Science

Ji-Young Lee¹, Yong-Ju Kang^{2*}

¹Dept. of Dental Hygiene, Jinju Health College, Assistant professor

²Dept. of Dental Hygiene, Jinju Health College, Associate professor

Objectives: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 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major satisfaction on the college life adjustment of freshmen majoring in health science.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22, 2020 to 24 targeting 181 freshmen majoring in dental hygiene, dental technology, health administration.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e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ith the SPSS 20.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 for college life adaptation was 3.33 ± 0.47 , self-efficacy was 3.22 ± 0.68 , communication ability was 3.49 ± 0.49 , major satisfaction was 3.45 ± 0.59 .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life adjustment self-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major satisfaction. Factors influencing on college life adjustment were personality,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Conclu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llege life adjustment program that can enhance positive personality, self 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Keywords College life adjustment, Communication ability, Major satisfaction, Self efficacy

Received on Oct 30, 2020. Revised on Dec 08, 2020. Accepted on Dec 17, 2020.

* Corresponding Author (E-mail: 0408kang@hanmail.net)

I. 서론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대학 환경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1], 대학생활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반응이다. 대학생 시기에 형성되는 사회적 성숙과 적응은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활 과정에서 겪는 새로운 변화와 그에 대한 적응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2]. 대학생들은 고등학교 시절과 다른 환경과 역할변화로 인해 적응의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생이 되는 자체가 중요한 스트레스 원인이 되고 있다[3]. 대학생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능동적이고 책임감을 지닌 사회인으로 역할을 기대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직업을 결정하는 전공의 선택과 장래에 대한 대비, 새로운 대학환

경 그리고 대인관계 등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4].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위주의 수동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반면, 대학생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5]. 특히 학업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의 양상이 달라진다[6].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많은 지지를 받아왔다[1].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도전으로 여기고 도전목표를 설정하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7].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는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자기효능감이 낮을 때는 체념이 빠르며, 실망하기 쉽고 자신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게 된다[8].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요구된다[9].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받는 대인 스트레스가 적게 나타난다고 한다[10]. 보건계열 학생들은 졸업 후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의료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임상기술을 갖춘 보건의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여러 유형의 환자들을 만나 상황에 맞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기효능감과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에 불만족 할수록 중도탈락 또는 학교 이동계획이 높아지고[11], 스스로가 선택한 학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12].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도는 평균적으로 중간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좋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1,14-15] 주로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변인은 주로 스트레스이며, 의사소통유형 외에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를 변인으로 수행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의사소통능력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에 소재한 J대학의 치위생과, 치기공과, 보건행정과 1학년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G*power Ver.3.1 progra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양측검정으로 효과크기 0.2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를 적용하여 172명을 산출하여 2020년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전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한 사전 설명한 후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 후 회수하였다. 전체 22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중 불충분한 응답이나

무응답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181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5문항, 대학생활 적응 25문항, 자기효능감 24문항, 의사소통능력 25문항, 전공만족도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Baker와 Siryk이 제작한 대학생활적응도검사(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를 손[16]이 재인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5개의 하위요인을 포함 25개의 문항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학업 적응(5문항), 사회 적응(5문항), 개인 정서 적응(5문항), 신체 적응(5문항), 대학 애착(5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척도로 표기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9이고, 하위항목의 신뢰도는 학업적 적응 .688, 사회적 적응 .574, 정서적 적응 .788, 신체적 적응 .511, 대학에 대한 애착 .766 이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차정은(1996)이 개발한 척도를 김[17]이 수정·보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3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한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자신감(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12문항), 과제난이도 선호(5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항목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표기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7이고, 하위항목의 신뢰도는 자신감 .843, 자기조절 효능감 .868, 과제난이도 선호 .770 이었다.

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Navran(1967)이 개발한 PCI (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의 내용을 최[18]이 성인들에게 알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 대학생들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언어적 의사소통(20문항), 비언어적 의사소통(5문항)으로 총 25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

0.908이고, 하위항목의 신뢰도는 언어적 의사소통 .883, 비언어적 의사소통 .748 이었다.

4)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과 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박[19]이 대학생들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을 신입생들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5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한 총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은 전공 교과내용에 대한 만족(교과 만족도) 4문항, 전공학과 학문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일반 만족도) 2문항, 수업내용 및 난이도에 대한 만족(수업 만족도) 3문항, 교수-학생 관계에 대한 만족(관계 만족도) 4문항, 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인식 만족도) 4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항목은 ‘전혀 아니다’에서 ‘아주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8이고, 하위항목의 신뢰도는 교과만족 .862, 일반만족 .762, 수업만족 .837, 관계만족 .903, 인식만족 .828 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 0.05에서 검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하여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변수 중심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 133명(73.5%), 남 48명(26.5%)이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 51명(28.2%), 300~400만원 미만 61명(33.7%), 400~500만원 미만 28명(15.5%), 500만원 이상 41명(22.7%)이었다. 성격은 매우 긍정적 29명(16.0%), 긍정적 140명(77.3%), 부정적 12명(6.6%)이었다. 학과 선택동기는 취미와 적성이 맞아서 22명(12.2%), 주변의 권유로 64명(35.4%), 입시성적에 맞춰서 22명(12.2%), 취업이 잘 될 거 같아서 73명(40.3%)이었다. 거주형태는 본가 125명(69.1%), 기숙사 40명(22.1%), 자취 16명(8.8%)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n	%	
Gender	Female	133	73.5
	Male	48	26.5
Monthly income (KRW10,000)	200~300	51	28.2
	300~400	61	33.7
	400~500	28	15.5
	≥500	41	22.7
	Personality	Very positive	29
	Positive	140	77.3
	Negative	12	6.6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Aptitude and hobbies	22	12.2
	Suggestion of surroundings	64	35.4
	High school grade	22	12.2
	Employment guarantee	73	40.3
Residences	Home house	125	69.1
	Dormitory	40	22.1
	Self-boarding	16	8.8
Total	181	100.0	

2.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정도

대학생활 적응은 5점 만점에 3.33점 이었다.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12점 이었고,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에 3.49점 이었다.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5점 이었다<Table 2>.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차이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성격($F=11.84, p<.001$), 학과선택동기($F=3.72, p=.013$) 이었다. 자기효능감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성격($F=16.30, p<.001$) 이었고, 의사소통능력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월평균소득($F=4.80, p=.003$), 성격($F=11.52, p<.001$) 이었다. 전공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 특성은 월평균소득($F=5.22, p=.002$), 성격($F=20.87, p<.001$), 학과 선택동기($F=8.47, p<.001$), 거주형태($F=4.68, p=.010$) 이었다<Table 3>.

4. 대학생활 적응,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상관관계

대학생활 적응은 자기효능감($r=.517$), 의사소통능력($r=.409$), 전공만족도($r=.673$)와 정적상관이 있었다<Table 4>.

5.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격-매우 긍정적($\beta=.43, p<.001$), 학과선택동기-취미/적성($\beta=.20, p=.034$) 이었다. 모형1의 설명력은 14.4% 이었다($F=5.88, p<.001, R^2=.144$).

모형2에 추가된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중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효능감($\beta=.28, p<.001$), 전공만족도($\beta=.55, p<.001$) 이었다. 모형2의 설명력은 52.7%이었다($F=23.96, p<.001, R^2=.527$)<Table 5>.

<Table 2> College life adjustment, Self 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Major Satisfaction

Variable		Min	Max	Mean±SD
College life adjustment	Academic adaptation	1.00	4.60	2.95±.60
	Social adaptation	1.40	5.00	3.44±.57
	Emotional adaptation	1.40	5.00	3.60±.72
	Physical adaptation	1.20	4.80	3.21±.57
	Attachment to the college	1.00	5.00	3.28±.61
	Total	1.24	4.52	3.33±.47
Self efficacy	Confidence	1.43	5.00	3.22±.68
	Self-regulating effect	1.92	5.00	3.30±.47
	Prefer task difficulty level	1.00	4.20	2.56±.59
	Total	1.92	4.67	3.12±.42
Communication ability	Verbal communication	1.55	4.95	3.48±.49
	Non-verbal communication	2.00	5.00	3.52±.59
	Total	1.64	4.96	3.49±.49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the curriculum	1.00	5.00	3.42±.65
	General satisfaction	1.00	5.00	3.37±.69
	Satisfaction in class	1.00	5.00	3.40±.70
	Relational satisfaction	1.25	5.00	3.43±.71
	Recognitional satisfaction	2.00	5.00	3.56±.69
Total		1.71	5.00	3.45±.59

<Table 3>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life adjustment, Communication ability, Major Satisfaction, Self efficacy

Variable	College life adjustment			Self efficacy			Communication ability			Major satisfaction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Mean±SD	t/F	P (Scheffe)
Gender												
Female	3.32±.44	-.52	.518	3.11±.43	-.65	.519	3.52±.47	1.29	.198	3.48±.60	1.04	.302
Male	3.36±.55			3.15±.36			3.41±.53			3.37±.57		
Monthly income (KRW10,000)												
200-300 ^a	3.33±.58	1.58	.197	3.12±.35	1.30	.275	3.38±.52	4.80	.003	3.27±.65	5.22	.002
300-400 ^b	3.27±.39			3.06±.40			3.42±.44		d>a,b	3.37±.48		c>a,b
400-500 ^c	3.50±.42			3.10±.42			3.47±.42			3.73±.57		
≥500 ^d	3.30±.47			3.22±.50			3.73±.49			3.60±.61		
Personality												
Very positive ^a	3.68±.51	11.84	<.001	3.45±.42	16.30	<.001	3.83±.50	11.52	<.001	4.01±.63	20.87	<.001
Positive ^b	3.28±.44		a>b,c	3.08±.38		a>b>c	3.44±.47		a>b,c	3.37±.52		a>b,c
Negative ^c	3.06±.38			2.78±.32			3.17±.25			3.06±.46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Aptitude and hobbies ^a	3.62±.45	3.72	.013	3.33±.39	2.45	.065	3.70±.43	1.85	.140	3.94±.51	8.47	<.001
Suggestion of surroundings ^b	3.30±.52		a>c	3.08±.44			3.45±.54			3.37±.67		a>b,c,d
High school grade ^c	3.17±.34			3.03±.39			3.40±.39			3.13±.49		
Employment guarantee ^d	3.32±.44			3.12±.40			3.49±.48			3.47±.48		
Residences												
Home house ^a	3.35±.49	1.51	.224	3.13±.41	.83	.436	3.47±.51	1.13	.326	3.43±.54	4.68	.010
Dormitory ^b	3.23±.43			3.05±.42			3.46±.40			3.35±.64		c>a,b
Self-boarding ^c	3.44±.41			3.17±.42			3.66±.50			3.86±.71		

Analysed by t-tset and the one-way ANOVA
 * a>b>c : scheffe test

<Table 4> Correlations among College Life adjustment, Communication ability, Major Satisfaction, Self Esteem

	1	2	3	4
1	1			
2	.517**	1		
3	.409**	.446**	1	
4	.673**	.406**	.447**	1

1: College life adjustment, 2: Self efficacy, 3: Communication ability, 4: Major satisfaction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2.97	.15		19.85	<.001	.68	.25		2.72	.007
Personality										
Very positive	.56	.16	.43	3.58	<.001	-.05	.13	-.03	-.35	.726
Positive	.22	.13	.19	1.60	.110	-.02	.10	-.02	-.17	.866
Motivation of major selection										
- Aptitude and hobbies	.30	.14	.20	2.14	.034	-.02	.11	-.01	-.15	.880
- Suggestion of surrounding	.07	.11	.07	.60	.548	.00	.08	.00	.02	.985
- Employment guarantee	.10	.11	.11	.94	.348	-.04	.08	-.04	-.43	.671
Self efficacy						.32	.07	.28	4.55	<.001
Communication ability						.04	.06	.05	.73	.464
Major satisfaction						.44	.05	.55	8.42	<.001
R2	.144					.527				
F(p)	5.88(<.001)					23.96(<.001)				

The data were analysed by the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Durbin-Watson=1.938, Tolerance=.276~.708, VIF=1.412~3.621

IV. 고찰 및 결론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많은 대학과 교육기관들은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매년 부적응 신입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지침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중도 탈락율은 2015년 4.97%, 2016년 5.10%, 2017년 5.1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도탈락의 사유는 자퇴가 가장 많은 원인으로 나타났다[20]. 이에 본 연구는 보건계열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3.33점이었고, 자기효능감은 3.12점, 전공만족도는 3.45점, 의사소통능력은 3.49점이었다. 최 등[21]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다고 하였다[22].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자기효능감의 하위항목을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이 높은 경우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한다고 나타났다. 특히 보건계열 학생들은 졸업 후 전문지식과 임상기술을 가진 보건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되는데 대학시절에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과프로그램이 있다면 대학생활 적응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졸업 후 임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 상황들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자신감

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입생들은 대학생활에서 새로운 동료, 교수 등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생활 적응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의사소통을 통해 표출되므로[9],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과 교내 상담소 활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영향요인을 보면, 성격에서 매우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순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민과 이[23]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성격유형을 가진 대학생들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영향요인은 성격, 학과선택 동기, 성격은 매우 긍정적이 긍정적과 부정적보다 높았고 학과선택 동기는 취미와 적성이 맞아서가 입시성적에 맞아서 보다 높았다. 이 등[24]의 연구에서도 학과적응을 잘 할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한 이해를 통한 전공 선택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25]. 이러한 결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전공 선택이 대학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직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습득과 진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스스로 적성과 취미에 맞춰 전공을 선택한 경우 학과공부에 좀 더 흥미를 느끼고 되고, 흥미를 가지고 학업에 열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학 입시 기간에 학과 선택 시 본인의 적성과 취미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 대학생활적응은 자기효능감,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와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 등[26]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과 양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보건의계열 학생들은 졸업 후 전문가로서 맡겨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과실습과목이나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성취감이 높아질수록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높아져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계열 대학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격-매우 긍정적, 학과선택 동기-취미/적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였다. 양[27]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애착, 자아개념,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결과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각 변수의 하위항목별 차이에서 긍정적 성격을 가진 학생은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의사소통능력이 높고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긍정적 성격 일수록, 취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하였다. 한[28] 등의 연구에 따르면 4주간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캠프, 전공몰입교육, 진로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대학 신입생들의 학업동기가 증진되었다고 하였다. 미국의 뉴욕 대학[29]에서는 신입생이 온라인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오리엔테이션 관련 사이트를 통해 상담교수, 선배,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학위에 관한 기본 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오리엔테이션 리더를 통해 학교생활과 등록에 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입생 세미나(New Student Seminar, SAHS-UE 1)를 통해 대학생의 역할을 탐색하고 선택한 분야에서 전문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텍사스 대학[30]의 경우 신입생을 위한 별도의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여 학업성취를 위한 필요한 자원을 정보를 제공하거나, 2박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여 단대별 모임, 학업 상담, 캠퍼스 이용 안내(캠퍼스 투어), 수학평가, 이브닝 소셜 액티비티, 학생증 발급, 재정 지원 관련 정보, 수강신청 등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 대학의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을 사전에 경험하면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보건의계열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 성격을 가질 수 있고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워크숍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과과정 중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학교육에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일개 대학교의 보건의계열 신입생들을 편의추출하여 시행하였기에 대표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일반화를 위해 후속 연구에는 다양한 지역의 보건의계열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추후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성격, 전공 선택동기,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를 고려한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1. Choi HJ, Lee EJ: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19(2): 261-268, 2012.
2. Jeon MK, Kim MS: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 Differentiation, Self Esteem, Life Stress in Nursing department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4):293-302, 2013.
3. Km SK: Life Stress in Freshman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2):215-237, 2003.
4. Jeon MK, Kim MS: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 Differentiation, Self Esteem, Life Stress in Nursing department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4):293-302, 2013.
5. Yoo GS, Sin DW: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s on Academic Burnout and Employment Stress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6):3849-3869, 2013.
DOI : 10.15703/kjc.14.6.201312.3849
6. Richard S. Lazarus and Susan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7. J. Spouse: An impossible Dream Image of Nursing held by pre-Registration Students and their Effect on sustaining Motivation to become Nurs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2(3):730-739, 2000.
8. H. J. Hwang, Y. W. Choi : The Effects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on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Social Science* 22(1):285-304, 2003.
9. Kim HS, Kang SM: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1): 157-176, 2013.
10. Han JL, Namgung EJ: Difference of the College Students' perceived Stress and Stress Coping Style According to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Amount and Depth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1):325-337, 2008.
11. Jeon MJ, Noh EK: The Convergence Study effected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health-related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4):433-442, 2018.
DOI : 10.15207/JKCS.2018.9.4.433
12. Yoo EY, Yang YJ: A Study on the Difference among College Students' Department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nd the Influence on Career Str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2):557-568, 2013.
DOI : 10.14400/JDPM.2013.11.12.557
13. Yoon EG: A Study on Affecting Factors of University Freshmen's Ego-identity and College Adjustment.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2002.
14. Son HG, Kwon SH, Park HJ: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5):636-646, 2017.
DOI : 10.5762/KAIS.2017.18.5.636
15. Min SY: Influence of communication and life stress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5):491-501, 2019.
DOI : 10.35873/ajmahs.2019.9.5.045
16. Son YJ: How Participation In Clubs Or Recreational Activities Impact On The college Life.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2003.
17. Kim AY: Study on the academic failure-tolerance and its correlate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11(2):1-9, 1997.
18. Choi EY: The effects of a communication skills group on high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nd communication ability,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2004.
19. Park KS: Self-efficacy and the satisfaction on dental hygiene-majoring students. master's thesis, Jeju University, 2015.
20. <https://www.moe.go.kr/newsearch/searchTst.jsp>
21. Choi MH, Min HH, Kim DH: Effect of Nunchi,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college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n Soc Dent Hyg* 20(3):378-86, 2020.
DOI : 10.13065/jksdh.20200035
22. Jang KA: Effec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and Self-Efficacy on Problem Solving Ability. *Journal of Korean*

-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7(1):59-63, 2019.
DOI: 10.33615/jkohs.2019.7.1.46
23. Min HK, Lee JM: A study of the relationship among positive character and self-efficacy for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5):263-281, 2019.
DOI: 10.22251/jlcci.2019.19.15.263
24. Lee SJ, Lee YH, Heo R: Influencing Factors on the Major Satisfaction of Students of Department of Dental Hygiene-Focused on Busa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1):21-31, 2013.
25. Son MK, Kim KH, Kim HS, Baek SE, Jung HJ, Lee BH: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ral Health Science* 1(1):51-61, 2013.
26. Kim SG, Oh SJ, Choi MS, Hong SH, Lee JC: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nchi and Stress/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of University Students. *The Convergent Research Society Among Humanities, Sociology, Science, and Technology* 8(7):649-658, 2018.
DOI: 10.21742/AJMAHS.2018.07.55
27. Yang HS: The effects of the attachment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4.
28. Han WS, Kim JK, Lee HK: Effects of the "Motivation Semester" Program among University Freshmen : Focused on K-Un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13(7): 522-530, 2013.
DOI: 10.5392/JKCA.2013.13.07.522
29. New York University. <http://www.nyu.edu/students/undergraduates/getting-started-at-nyu/school-orientation-registration.html> <http://steinhardt.nyu.edu/orientation>
30.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ttp://orientation.utexas.edu/>